

유달산 봄축제, 역사·문화축제 재편

여론조사 결과,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보다 선호 4월 6~20일까지 매주 주말 다채로운 행사 마련

올 해부터 유달산 봄 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맞는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탐방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과 어울린 지역의 역사·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풀어내는 역사·문화 축제로 재편해 보다 의미 있는 축제로 승화 시킬 예정이다.

목포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유달산 봄맞이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중 5일에 걸쳐 유달산 및 원도심 일원에서 '2019 유(달산) 케(이불카) 한!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대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열리는 날은 주말과 휴일로 4월 6일~7일, 13일~14일, 20일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천732명이 참여해, 기존의 '이순신 수군문화축제(18.13%)' 보다 '유달산 봄 축제(81.18%)'가 목포를 더 대표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축제는 '유달산의 봄'을 바탕으로 돌레길 트레킹, 시립예술단체 공연, 시민노래자랑, 버스킹 공연, 케이불카 개동 이벤트 등 매주 차별화된 테마 행사를 선보인다.

또, 수군 교대식 등 이순신 수군의 역사적 가치를 접목해, 유달·만호동 일대 근대역사 문화공간 탐방과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정명여고 4·8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가



지 더해 문화·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맛의 도시 선포',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목포 관광의 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기간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4월, 목포의 맛과 해상케이블카, 근대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목포 유달산 봄 축제의 매력이 관광객을 기다린다.

목포=백민성기자 mspark214@srb.co.kr

강진 첫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영예

녹색목장 노민섭 대표, 수소 전국농협대회서 뽑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한우산업 분야에 강진군 최초로 한우 보증씨수소가 선발되는 경사가 났다.

강진을 녹색목장 대표 노민섭(50)씨 후보 씨수소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발되는 2018년 하반기 한우 보증씨수소(KPN1248)에 당당히 선발되는 큰 영예를 안은 것이다.

한우 보증 씨수소(KPN / Korean proven bull's number)는 대한민국 수소를 대표 능력검정 결과에 의거 단계별로 엄선 확정하며, 전국에 분포된 수소 중에서 보증 씨수소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5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증씨수소는 전국에서 평균 70~80여두

가 선발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한우개량사업소 보증씨수소 선발농가인 노 씨는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26년간 한우 사육업에 종사해 현재 32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11년 전부터 전국에서 100명 이내인 한우육종농가로 지정돼 활동하면서 후보씨수소로 선택돼 3번째 도전 끝에 보증씨수소 선발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뤘다.

또 강진군 한우육종연구회를 만들어 30여명의 회원과 함께 착한한우교실을 운영해 한우개량 및 사육기술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진완도축협 이사로 재직하는 등 강진군 한우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강진군에서 1호로 처음 탄생해 개인에게는 큰 영예와 함께 강진군 한우산업 위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진도군, 주요 관광지 현장 안전 점검

진도군은 오는 7월 '썸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진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용장성, 이충무공전립, 진도타워, 진도게이트파크, 운림산방, 남도진성, 세방낙조 등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주요 공사 진행 사항, 주차장과 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진도여행안내센터, 운림산방 인근 탐방로와 체험공원을 비롯 세방낙조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의 조성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군은 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날 현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썸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



용 태세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9개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된 TF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대응 추진계획을 민간 분야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위한 토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사전 현장 점검 등을 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노후·불법 건물 ▲관광안내표지판 등 도로표지판 ▲교차로 교통 방해 요인 등 관광객 입장에서 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진도=백민성기자 hm3753@srb.co.kr



사이클 동계훈련 구슬땀

전국의 사이클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을 찾은 10개팀 138명의 선수단이 훈련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강진은 날씨가 따뜻하고 도로 여건과 주변 경관이 좋아 사이클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지훈련지로 알려지는데다 한국 사이클 대회 시 첫 서막을 여는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가 매년 강진에서 열려 동계 훈련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민원해결 한번에 '원스톱 허가과' 신설

함평군, 조례개정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함평군이 '원스톱 허가과'를 신설해 민원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복합민원팀, 건축팀, 위생팀 등 총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된 원스톱 허가과를 신설했다.

민선 7기 주요공약사항인 원스톱 허가과 설치에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민원서비스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신설된 원스톱 허가과는 그동안 지역경제과, 전략경영과 등 개별 부서에서 나눠 처리하던 건축 인·허가, 농·산지 전용 인·허가, 개발행위 업무, 환경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민원봉사과에서 관할하던 공중·식품위생 관리업무, 식품제조·가공·판매 업무 등 위생 관련 업무도 이관됐다.

또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법령 심의도 관

련 실·과에서 수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장 1년에 달하던 민원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전망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원스톱 허가과는 군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중요한 연결통로"라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이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즉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9월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도 현행 유지할 방침이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는 퇴직 공무원 2명을 민원메니저로 위촉해 고충민원상담부터 민원처리까지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민원처리완료시까지 불필요한 방문 없이 전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활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만삭 임산부 등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대기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자 안내창구도 민원봉사과 입구에서 그대로 운영된다.

군은 이번 원스톱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처리 속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이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해 각각의 소관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정창환기자 jch3857@srb.co.kr

나주배 가공품 상품화 지원사업자 모집

나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019년 '나주배 가공품 상품화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나주배를 가공시켜 만든 제과류 '나주배 구유 빵' 외 1종에 대한 기술 전수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쉽게 맛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선정된 업체 1개소에 총 사업비 5천만 원(자부담 20%)을 들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판매장 운영

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나주시에 제과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왕곡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상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특산물인 나주배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품 개발에 힘써,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주=황종환기자 h6450909@srb.co.kr

광주 CBS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9:00~11:00



서수현의 <매일 주와 함께>
11:00~12:00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